



배경사





제29장 바울의 성령 이해(4)

Jesus

IV. 양자의 영(로마서8:14~17)

➤ 서론

- 1) 바울과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점
- 2) 바울의 답

➤ 로마서 8:14~17의 주석

- 1)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됨
- 2) 양자의 영, 3) 성령의 증거
- 4)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 5) 갈라디아서 3:1~5, 13~14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율법, 6)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
- 7) 결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양자의 영





1. 서론 ●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증거하는가?

(참조. 로마서 8:14~17)





1. 서론 ●

1) 바울과 유대주의자들간의 논쟁점

- ◆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인가?
- ◆ 그들은 언제 기업을 물려 받을 것인가?





1. 서론

2) 바울의 답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됨에 성령의 사역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됨과 상속자가 됨은 율법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달려 있음을 주장.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종말에 그의 영광에 참여함 (롬 8:17)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현재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상속자 됨인데, 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아들 되심과 상속자 되심에 근거하여 종말에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1)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됨 - 1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14)

▶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증거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로 하여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이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 창조하시기 위함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1)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됨 - 2

- ▶ 내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의 죄의 행실을 죽여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 ▶ 그에게 영원한 삶이란 바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 ▶ 14절에서, “인도함을 받는”이란 구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화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성령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역동적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1)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됨 - 3

▶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은 구약의 예언, 영원한 언약의 성립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이해 (이사야 55:3; 겔 36:26-27.)

▶ 내재하는 성령은 내재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데 (롬 8:10),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신다. 이는 이사야 11:1-3 메시아적 사역 예언의 성취를 나타낸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1)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 됨 - 4

▶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삶은 기껏 육신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훨씬 그 이상의 것—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실존을 의미 (롬 8:17이하; 빌 3:31).

▶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선택적인 것과 과외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2) 양자의 영 - 1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 ▶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해 주신다고 이해.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2) 양자의 영 - 2

▶ 양자의 영: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서 노예와 같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 ▶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예수님께서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심을 보여주시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와 같은 신뢰와 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특징짓는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2) 양자의 영 - 3

▶ 구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 가운데 호칭으로 부르는 예가 없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예수의 일관된 하나님의 호칭 “아버지”가 복음서에 170번 이상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종말적 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 사람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관계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3) 성령의 증거(로마서8:16) - 1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16)

▶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

3) 성령의 증거(로마서8:16) - 2

▶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 주셨으며 계속 확인하여 주실 것이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4)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 1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2. 로마서 8:14~17의 주석

4)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 2

▶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5) 갈라디아서 3:1~5, 13~14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율법-1

▶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함은 그들이 회심할 때 성령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로 마친다 함은 그들이 현재 율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내었다고 말한다. 예수는 그의 흠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그를 그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6)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 -1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양자됨과 상속자됨에 관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을 강조한다.

- A. 미래의 구원에 반드시 참여하리라는 것.
- B. 매일의 안전
- C.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용기.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의 길과 제자들의 핍박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를 위한 고난은 기뻐하여야 할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로마서 8:14~17의 주석



7) 결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양자의 영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됨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구원사적으로 해석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양자됨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 실현되었는데, 이제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이해한다.

